

잡아함 65. 수경

날짜: 2월 13th,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666>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항상 힘써 선(禪:고요히 사유함)을 수행해서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하느니라. 왜냐 하면 비구가 항상 힘써 선(禪:고요히 사유함)을 수행해서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하면 사실 그대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사실 그대로 관찰하는가? ‘이것은 색(色)이다. 이것은 색의 적집(積集)이다.

이것은 색의 소멸이다. 수 · 상 · 행도 마찬가지이며, 이것은 식이다. 이것은 식의 적집(積集)이다. 이것은 식의 소멸이다’라고 관찰하는 것이니라.

어떤 것이 색의 적집(積集)이며, 수(受) · 상(想) · 행(行) · 식(識)의 적집(積集)인가?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 ‘이것은 수의 적집(積集)이다.

이것은 수의 소멸[受滅]이다. 이것은 수에 맛들임[受味]이다.

이것은 수의 재앙[受患]이다.

이것은 수에서 벗어남[受離]이다’라고 사실 그대로 관찰하지 못한다. 사실 그대로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를 즐거워하

고 집착하여 취함[取]이 생기고, 취함을 인연하여 존재[有]가 있게 되며, 존재를 인연하여 태어남이 있게 되고, 태어남을 인연하여 늙음·병듦·죽음·근심·슬픔·번민·괴로움이 있게 되며, 이와 같이 모든 것이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적집(積集)으로부터 생긴다.

이것을 색의 적집(積集)이라 하고, 이것을 수·상·행·식의 적집(積集)이라 하느니라.

어떤 것이 색의 소멸[色滅]이며, 수(受)·상(想)·행(行)·식(識)의 소멸[滅]인가?

법문을 많이 들은 거룩한 제자들은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들을 받으면 ‘이것은 수의 적집(積集)이다. 이것은 수의 소멸이다. 이것은 수에 맞들임이다. 이것은 수의 재앙이다.

이것은 수에서 벗어남이다’라고 사실 그대로 관찰한다.

사실 그대로 관찰하기 때문에 수에 대한 즐거움과 집착이 소멸하고, 집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취함이 소멸하며, 취함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며,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병듦·죽음·근심·슬픔·번민·괴로움이 소멸하고, 이와 같이 모든 것이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다 소멸하게 된다.

이것을 색의 소멸이라 하고, 수·상·행·식의 소멸이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비구는 항상 힘써 선(禪:고요히 사유함)을 수행해서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한다.

비구가 선정에 머물러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하고 수행방편을 부지런히 닦는다면 사실 그대로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